

##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서 개성 만월대 전시물 설치전

내달 1일부터 60여점 디지털 전시

오연근 기자 발행일 2021-10-12 제9면



연천군 재인폭포와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차장 부지가 '가을꽃'으로 단장했다.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재인폭포 데크 주변 산책로를 따라 국화와 백일홍 군락지가 조성됐으며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차장에는 국화 등 5만여 점의 대형 정원이 마련돼 '힐링장소'로 개방,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. 사진은 국화로 뒤덮인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차장. 2021.10.11 연천/오연근기자 oyk@kyeongin.com

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개성 만월대 전시물 설치전이 열린다.

경기도 (사)남북역사학자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전 축제장 식당 자리에 마련된 컨테이너 8동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성과 및 고려 문화유산 홀로그램 형식 디지털 전시로 진행된다.

전시유물은 남북이 공동 발굴했지만 남쪽 운반이 불가능한 기와 및 세계최초 고려금속활자 등 복제본과 홀로그램 60여 점이 선보인다.

이번 전시 특징은 실제 유물을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·완성된 복제품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경령전 발굴현장 영상이 제공된다.

남북역사학자협의회 관계자는 "대표적인 남북협력 발굴사업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남북문화유산교

류협력 관심을 제고하고 DMZ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"며 "내년에는 대전광역시, 충남 등지 등 전국 확대 전시 계획을 수립 중"이라고 밝혔다.

연천/오연근기자 oyk@kyeongin.com